

구조기능론, 발달론 및 건강가정 관점에서 비교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 관련 단원 내용 분석

김지영* · 조병은**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A Content Analysis of the Family-Related Unit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Structure Functionalism·Family Development and Healthy Family

Kim, Ja-Young* · Cho, Byung-Eun**

*Incheon Girls' High School, Teach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within the 7th Curriculum from three theoretical viewpoints: structure functionalism·family development and healthy family. A quantitative and in-depth content analysis were carried out with the six elemen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role, family relation, family life cycle, adjustment to the aged,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the in-depth analysis, a healthy family viewpoint was reflected in the family structure, family role, adjustment to the aged, marriage and childbirth elements and a structure functionalist viewpoint was found in the family relation element. The family life cycle elements reflected a strong tendency of family development theory.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consisting of pictures, illustrations, examples indicated that a structure functional viewpoint was prevalent in both the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ole elements.

Overall, structure functionalism and healthy family viewpoint were reflected at similar level in the textbook.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teaching methods and future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고등학교 가정(Home Economics in High School), 교과서 분석 (Content Analysis of Textbook), 가족단위(Family Unit), 구조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ism), 발달론(Family Development Theory), 건강가정 관점(Healthy Family perspective)

I. 서 론

우리 사회가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이르기까지 고도로 압축되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가족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 구조가 다양해져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되고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국제결혼 가족, 재혼가족, 노인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기능이 사회로 이전되어 가족의 애정적 기능이 강화되고,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공유가 필요해지고 자녀 및 노인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의 중요성은 증가되어가고 있다.

가족 구조의 다양화로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 관계가 다양해지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져 노후역할이나 노년기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같은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 및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결혼, 이혼,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져서 의무적인 특성에서 선택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어 초혼 연령 연장, 혼인을 감소, 저출산 증가, 이혼율과 재혼율 증가와 같은 다양한 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고 가족의 외적 구조보다는 내적 기능을 강화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송혜림, 2005; 유계숙, 2004; 유영주, 2004; 조희금, 박미석, 2004). 또한 가족의 여러 가지 변화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단원을 독립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최정혜, 2002). 그러나 교과서 내 가족 관련 내용이 핵가족, 부부중심, 규범과 기능중심적인 가족관계로 서술되어 정형화된 가족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교과서 내 가족과 관련된 내용

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한다(유태명, 2006; 신상옥 외, 2000).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표현하기에 제한적이고 실제 자신의 가족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실천성이 없으며 갈등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이 화목하거나 원만하게 지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갈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가족역할공유,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갈등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요소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정선희, 조병은, 2007; 김명자, 장지연, 2006; 손주영 외, 2006; 유태명, 2006; 신상옥 외, 2000). 이와 같은 교과서 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가족과 관련된 관점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 현대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 개선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교과서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성차별적인 내용을 밝혀 가족 관점보다는 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정해숙, 2003; 김선경, 2002). 교과서의 가족과 관련된 단원을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에서는 핵가족 내 규범·가치 전달과 사회화, 인성의 발달이 강조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고 역할이 남과 여로 나누어 각각 존재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사회와 가정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가족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결과물이고 편안한 안식처로 설명되어 있어 핵가족만을 정상가족화하여 실과(기술·가정)교과서가 변화하는 가족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었고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본 경우에도 구조와 역할만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발달주기, 결혼, 자녀양육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접근되었는지 본

연구는 없다. 갈등 및 가족문제해결, 결혼이나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 발달주기의 다양성, 노후 준비 및 적응 등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를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 가족의 변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내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해야함이 요구된다. 건강가정 관점은 가정 교과가 추구하는 실천성, 응용성, 그리고 문제해결력의 향상인 학문의 성격과 같은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현재 교과서의 가족관련 내용에서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에 관련된 개념들인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노후적응, 성·이성교제 및 배우자선택과 결혼, 부모됨과 임신 및 자녀양육이라는 분석요소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교과서 개정 시 가족 관련 내용을 접근할 때 가족에 대한 관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을 가족구조, 가족역할과 관련된 내용에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본문과 참고자료를 통하여 심층 분석하고 또한 가족구조와 가족역할에 관련된 내용을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의 예를 통하여 계량 분석한다.
- 2)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을 발달주기, 갈등·가족문제 및 문제해결, 노후적응, 성·이성교제 및 배우자선택과 결혼, 부모됨과 임신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본문과 참고자료를 통하여 심층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문헌 고찰

1. 가족 변화와 이론적 접근

사회 변화로 가족의 구조, 기능, 역할 등 여러 영역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을 보는 관점도 변화하였다. 초기산업화 시대에는 지역적, 사회적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므로 핵가족이 기능적으로 적합하다는 구조기능론이 대세를 이루었다(정현숙, 유계숙, 2001).

구조기능론은 가족을 사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제도로 전제하고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규정해왔다. 가족구성원 또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가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기본으로 가족은 사회의 하위체제로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사회의 성원을 충원하여 사회를 영속해야하므로 결혼과 출산을 규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존재하는 핵가족을 강조하고 아버지는 도구적 역할, 어머니는 표현적 역할로 구분하며 자녀의 사회화를 강조한다(양정혜, 김지경, 2002; 정현숙, 유계숙, 2001). 만약 가족구성원의 존재가 부재하거나 가족이 해체될 경우 가족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사회체제에 기능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고 핵가족이 아닌 다양한 구조의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폄하하게 하였다.

또한, 구조기능론에 의하면 노년기도 은퇴한 후에는 사회와 유리하여 편안하고 활동수준이 많지 않고 자녀, 손자녀와의 친밀한 세대 관계를 이루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적응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며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당위적인 성격으로 한정지음으로써 가족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양정혜, 김지경, 2002; 정현숙, 유계숙, 2001).

초기산업화 시대에 구조기능론과 함께 발전한 이론은 발달론이다(정현숙, 유계숙, 2001). 발달론은 구조기능론처럼

럼 핵가족을 기본으로 여긴다. 가족의 일반적인 변화를 가족생활주기라 하고 결혼을 시작으로 첫 자녀의 성장과 가족원의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한다. 각각의 가족생활주기마다 그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발달론은 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양, 이혼이나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 자녀가 많은 가족, 확대가족 등 핵가족이 아닌 다양한 구조의 가족 발달단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결혼한 부부의 건강한 변화나 적응을 지나치게 아동발달에 비중을 두어 설명한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4). 그리고 가족마다 독특한 경험과 생활사건 및 시간과 가족 외부의 다른 경로를 통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대 사회의 가족 모습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유영주, 2002).

따라서 구조기능론과 발달론은 초기 산업화 시대의 가족에 적합한 이론으로 가족제도를 사회변화의 불안정성을 막는 요새나 삭막한 세상 속의 안식처로서 기능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가진 핵가족을 정상가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결혼가족으로 문제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다(정현숙, 유계숙, 2001).

구조기능론이 현대 사회의 가족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관점인 건강가정관점이 제시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저조하여 여성의 역할이 과중된 현상 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가족 역할의 공유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 이혼, 폭력, 노인부양, 가족붕괴 등과 같은 현대 사회에 발생한 가족의 여러 문제가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가족을 더 이상 '가만 놔두어도 알아서 잘 기능하는',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생활단위가 아니라,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송혜림, 2005).

건강가정 관점은 근대화, 탈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 가족 형태를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였던 바 Otto(1962), Stinnett와 DeFrain(1985)은 강한, 든든한 가족(Strong Family), Walsh(1998)은 회복력 있는 가족(Resilient

Family), Olson(1989)은 균형잡힌 가족(Balanced Family), Beavers & Hampson(1990)은 최적의 가족(Optimal Family), Elkind(1995)는 활기있는 가족(Vital Family)으로 연구하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부터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생긴 관점이다(유영주, 1994).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이론은 아니지만 가족의 기능을 강조한 관점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화한 구조기능론과 달리 구조와 상관없이 가족구성원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적 기능을 잘 수행하면 기능적인 가정으로 본다. 가족 내에 존재하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여 가족의 친밀감·결속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가족구성원인 개인은 건강가정을 통하여 자율성과 자아정체감의 확립,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자기 성취감과 행복감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을 추구한다고 본다(유영주, 1994).

건강가족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유영주(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 공유, 역할충실, 경제적 안정과 협력, 신체적 건강, 가족사회와의 유대감, 유계숙(2004)은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을, 양순미(2001)는 의사소통과 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 의사결정과 가족일체(유대감), 가족 융통성과 사회적인 지지, 가족의례 창출을 건강가정의 요소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희금과 박미석(2004)은 건강가정이란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하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하며 가족역할을 공유하는 가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며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러 학자의 의견을 수렴해볼 때,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의 외적 형태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열린 대화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친밀감, 결속력을 강화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

는 가족의 내적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에는 핵가족 위주로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의 가족들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나의 형태 혹은 정상적·전형적·보편적 형태의 가정을 강조하다보면 편견이나 소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가 정책 뿐 아니라 가정교과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송혜림, 2005) 건강가정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서의 가족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실과(기술·가정)교과서는 보다 건강하고 발전된 생활을 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실행하는 실천과학이다. 가족 형태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관계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며 가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도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관점으로 가족을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끼리 노력하거나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사회지원체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정을 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 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교과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 규범 등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이다. 대부분의 학업이 교과서 위주로 계획, 진행, 평가되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크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김지희, 2001).

실과(기술·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내용체계 등을 분석하거나(기남호, 최유현, 2004; 윤인경, 2004; 이연숙, 2001; 이춘희, 2001) 각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정수경, 2004; 이지영,

2002), 다른 교과와의 교육내용 관련성을 분석하거나(유태명, 1998)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정해숙, 2003; 김선경, 2002).

가족 단원에 대한 교과서 분석에 적용된 이론적 관점은 주로 양성평등적 또는 성인지적 관점(김미정, 유태명, 2004; 강선미, 2004; 정해숙, 2003; 김선경, 2002)으로 접근하였다. 김미정과 유태명(2004)은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삽화를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단위를 성별구성, 등장인물간의 관계, 옷의 색깔과 옷차림에 대한 불평등·평등 정도, 성별분포, 활동배경, 성인·아이·청소년의 활동으로 전체적인 평등·불평등 정도를 계량 분석하였다. 정해숙(2003)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중등 가정과 교육의 교육과정상 위상과 교육적 가치, 실과 교육과정의 변천, 제7차 기술·가정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김선경(2002)은 제6·7차 교육과정의 실과, 기술, 가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남녀 인물 현황을 계량분석으로, 남녀역할을 심층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강선미(2004)는 문장과 사진 삽화에서의 등장인물의 성구성, 등장배경, 등장인물의 활동모사를 계량 분석하였고, 양성평등의식을 위한 교육내용, 가정생활에서 의식주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내용, 가정교과에서 성차별적 교육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와같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교과서 내용이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인지적,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이외에 가족 이론적 관점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을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는 한 편밖에 없다. 이들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서 중 「I. 나와 가족생활」 단원 내에서 목차구성 및 교과서 내용이 구조기능 이론 관점으로 가족 내 사회화와 안정화, 성인으로서 인성 발달 측면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의 목차가 지식나열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가족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결과물이며 편안한 안식처로 설명되고 있어서 핵가족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

의 가족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며 비판이론에 입각한 가정교과의 목표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과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가치관, 규범의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적응으로 설명되고, 임신의 과정과 성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생물학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이성적 판단과 반성적 사고를 통한 행동 선택이 아니라 성인 사회의 도덕적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가족 관련 단원을 가족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었으며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녀 불평등한 내용이 남아있어 구조기능론적인 관점만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조기능론을 적용한 연구도 가족구조적인 측면만을 분석하였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른 개념인 가족생활주기, 결혼, 부모됨의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기능론이 아닌 현대 가족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12권의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본문,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사진과 그림은 해당 단원 전체 지면에 나온 모든 사진과 그림을 포함하며 가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진과 그림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자료는 본문을 제외한 읽을거리, 용어설명, 심화·보충학습, 인터넷 자료, 열린 교실(생각), 한걸음 더, 쉬어가기 등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내용이 아니며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들을

말한다(이정규 외, 2003).

가족과 관련된 단원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구조, 가족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과 같은 6가지 분석요소로 추출하였으며 심층 분석을 위해 각 분석요소마다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의 중요한 개념들을 하위 요소로 선별하여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의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문 및 참고자료의 심층 분석과 본문 및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의 계량분석으로 나뉜다. 심층 분석은 모든 분석요소로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량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은 △·△·▲, 건강가정 관점은 ☆·★·★의 기호로 가시화하여 나타내었다. 기호의 농도에 따라 각각 ☆·△는 1~2줄, ★·△는 3~5줄, ★·▲는 6줄 이상을 의미하고, 기호의 개수는 해당 내용이 제시된 횟수를 나타낸다. 기호 집계 방법은 각 기호가 나타내는 분량을 ☆ : ★ : ★ = △ : △ : ▲ = 6 : 3 : 1의 비율로 환산하여 총계에서 ★는 ⊙, ▲는 ⊕로 표시하였다.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활동자료는 분량이 많아 제외하였다. 계량분석은 분석요소 특성 상 가족구조와 가족역할만 분석하였다. 발달주기 분석요소에서는 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머지 분석요소는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2권의 교과서를 임의로 기호화하였으며 각각의 분석요소와 관점에 따른 하위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가족구조

고등학교 '가정생활의 설계' 대단원에 나오는 '가정생활의 문화의 변화' 중단원의 내용에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

1) 이정규, 김명자, 모태화, 박미정, 박선영, 조재순(2003)의 연구에서 자료 종류는 기호로, 분량을 농도로 구별하여 기호화하는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함.

타나있다. 가족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내적 기능을 강조한 경우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되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 중 핵가족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핵가족 위주로 설명한 경우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문 및 참고자료의 가족에 대한 설명을 건강가정 관점과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분석하고,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 구조 명칭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계량 분석하여 가족구조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였다.

1) 본문과 참고자료의 나타난 가족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에 대한 설명 중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을 나타냈는지,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거나, 핵가족만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고등학교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설명한 경우는 11.1로, "핵가족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대두되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한다(교과서 자)."처럼 짧게 다양한 가족이 있음만 제시하거나 "최근에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로 재혼 가족, 편부모 가족, 입양 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교과서 나)."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명칭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족을 혈연이 아닌 비혈연 관계로 확장시켜야 함을 설명하거나 외국인 과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를 제시하여 가족 구조의 다양성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표 IV-1>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

구분 출판사	다양한 가족	사회기본단위	핵가족 중심 설명	계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가	★12★25★29☆35	·	△9△28△32△33	△△△△	★★★☆☆
나	★13★11☆23★34☆46	△20	△22△24	△△△	★★★☆☆☆
다	★12☆22★28	·	△26	△	★★☆☆
라	☆★11	△9△13	△9△25△32△33	△△△△△△	★☆☆
마	★☆12☆64	△12	△23	△△	★☆☆☆
바	★★26☆27	·	△29	△	★★☆☆
사	★208	·	△18△206	△△	★
아	★10-11☆68	·	△28△29	△△	★☆☆
자	★11☆60	△10△11△61	△23△31△37	△△△△△△	★☆☆
차	★11	△38	△26	△△	★
카	★11☆19	·	△28△30	△△	★★☆☆
타	★11	△43	△29	△△	★
총계	11.1	1.5	6.5	8.0	11.1

건강가정 관점	분량	구조기능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 ☆:3 ★:1 ★

▲=6 △:3 △:1 ▲

주: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설명한 경우는 ●=1.5, 핵가족 중심으로 설명한 경우는 ▲=6.5로 나타났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으로 결혼이나 혈연에 의해 맺어진 구성원들이 의·식·주생활을 함께 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집단이다(교과서 라).”,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그 가정이 속한 사회의 역사, 정치, 문화 등을 잘 반영하며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교과서 자).”처럼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성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며 자녀가 성장한 뒤 결혼을 시키고 노년을 맞게 된다(교과서 사).”, “대부분의 개인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교과서 타).”처럼 핵가족 위주의 설명이 주로 단원 개관에 있거나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단원의 도입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건강가정 관점은 ○=11.1, 구조기능론 관점은 ▲=8.0으로 약 1.4배 건강가정 관점이 많이 나타났다.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에서는 가족의 구조, 가족의 가치관 등 가족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상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건강가정 관점이 구조기능론 관점보다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시된 횟수를 비교해보면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난 횟수는 29회, 구조기능론 관점이 나타난 횟수는 33회로 구조기능론 관점이 더 많았다. 대부분 핵가족과 관련된 설명이 먼저 제시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쓰였거나 미래의 모습으로 예상하여 건강가정 관점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조기능론 관점이 더 많이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 구조에 대한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 외에도 교과서의 사진과 그림 속 가족의 모습에서 가족 구조를 분석하였다.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 구조가 핵가족만 제시되어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났는지, 다양한 가족 구조를 제시하여 건강가정

관점을 나타냈는지 알아보았다. 단원개관에 제시된 사진과 그림은 단원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 제시된 사진과 그림 속 가족 구조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핵가족이 총 73.9%(65회)를 차지하고, 확대가족은 14.8%(13회), 기타 가족은 11.4%(10회)로, 핵가족이 반 이상 나타났으므로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가족 형태는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이 2.3%(2회), 무자녀가족, 노인가족, 조손가족, 수정확대가족이 1.1%(1회) 나타났으며 대부분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단원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개관 부분의 사진과 그림 속 가족 구조는 핵가족이 30.3%(10개), 확대가족이 18.2%(6개)로 핵가족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떠올림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보편적이고 정상적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가족구조에 대한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가족구조나 가족구성원들의 실례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구조기능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 구조 명칭에서 나타난 가족 구조가 사진과 그림에 나온 가족 구조보다 횟수가 많았다. 그 이유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보다는 활자 위주의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 구조 명칭에서 나타난 가족구조는 기타가족이 81.6%(173회)로 핵가족 8.0%(17회), 확대가족 10.4%(22회)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단원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나열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핵가족이 많았다.

기타 가족 중 독신이 17.5%(37회), 맞벌이 가족이 14.2%(30회), 한부모 가족이 12.7%(27회) 순으로 나타났

다. 독신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결혼 관련 단원 내용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독신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무자녀 가족 8.5%(18회), 재혼가족 8.0%(17회), 노인가족 7.1%(15회), 별거가족 2.8%(6회), 비혈연가족과 동거가족이 1.9%(4회), 입양가족·수정확대가족·수정핵가족이 1.4%(3회), 조손가족과 공동체가족·미혼모가 1.9%(2회), 소년소녀 가장가족이 0.5%(1회)로 나타났다.

2. 가족역할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단원에서 변화된 가족역할,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단원에서 발달과업에 따른 가족역할,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 부모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역할을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과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족구성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융통적으로 공유하느냐에 따라 구조기능론, 건강가정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사회의 하위체제로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조기능론 관점을 알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 역할인 경제

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인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을 역할공유로 접근하였는지 본문과 참고자료의 설명, 사진과 그림을 분석한다. 특히 ‘결혼과 육아’단원에는 결혼, 부모됨의 의미, 임신, 출산, 산후조리, 아동발달, 자녀 돌보기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현적이고 돌보는 역할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부모의 역할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내지 않았는지 본문과 참고자료의 설명, 사진과 그림 속 부모의 제시횟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자녀의 사회화를 강조하였는지 본문과 참고자료를 조사한다.

1)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가족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

정서적 역할, 경제적 역할,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서 역할 공유의 강조,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제시, 어머니의 역할만의 강조 그리고 자녀의 사회화 역할의 강조로 구조기능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하였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가족역할 분담별로 구분하면 가사노동 공유가 8.8로,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에서 가치관의 변화의 하나로 성평등과 남녀 역할 공유를 제시하였고, 특히 여성이 가사

<표 IV-2>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

구분 출판사	가사노동 역할공유	자녀양육 역할공유	정서적 역할 공유	경제적 역할 공유	아버지 역할 제시	어머니 역할 강조	자녀 사회화	계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가	☆12*33*34*35	☆12☆50	★49☆58*59	☆12☆26☆47	☆53☆54	△△52△54△56	-	△△△△★☆☆☆☆☆☆☆☆☆☆
나	☆12☆24	☆12*30*31	*43	☆17☆24☆34	*30*31*35*36*38☆46	△35△38△39	△25	△△△★☆☆☆☆☆☆☆☆☆☆
다	☆14☆22*31*32	☆14☆22☆42	★43	☆22	*42*45☆47*49	▲42△△45△46▲47△56△59	△13△37	△△△△▲▲★☆☆☆☆☆☆☆☆
라	☆27	☆27	☆27	-	★44*45*53	▲43▲44▲46△49△51	-	△△△▲▲★☆☆☆☆
마	☆27☆31★33*35	☆47☆64	*13*62	☆31	★47☆52	△47△50△△△▲51	-	△△△△△▲★☆☆☆☆☆☆☆☆
바	*34	*34	*34☆48	-	☆47☆50☆51	△61	△48	△△☆☆☆☆☆☆
사	*203*215☆214	-	-	-	★15*16☆25	△△16▲19△25	-	△△△▲★☆☆☆☆
아	*33*35	*38	☆36	-	☆49☆54	▲54▲56▲59	△11	△▲▲★☆☆☆☆
자	☆12*24	-	*52	-	*43-44☆45☆46	△△△43△45△50	-	△△△△△☆☆☆☆
차	☆12	☆12☆20	-	☆12	☆43	▲42△△45△47△48△49	△38△46	△△△△△△△▲★☆☆☆☆
카	☆11☆30☆63	☆11	☆11☆30*42	-	☆42☆49	△45△47▲49-50	△41	△△△▲☆☆☆☆☆☆☆☆
타	☆24*34☆38*39	☆47	-	☆11	★47☆49☆51☆52	△52	-	△★☆☆☆☆☆☆☆☆
총계	8.8	4.0	7.3	1.7	11.2	30.0	1.5	31.5

<표 계속>

건강가정 관점	분량	구조기능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3* :1★		●=6△3△ :1▲	

주 :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노동과 직업을 동시에 해나가기 어려우므로 가족구성원이 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건강가정 관점이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양육 공유가 ●=4.0, 정서적 역할 공유가 ●=7.3으로 ‘결혼과 육아’ 단원 중 ‘부모됨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에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및 정서적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역할 공유는 ●=1.7로 기존 여성의 취업이 많아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나타내어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한 내용은 ●=11.2로 나타났고 제시된 횟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1~2줄로 짧게 제시된 경우가 많았고 교과서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태교와 관련하여 “남편이나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중요하다(교과서 바)”처럼 남편의 참여를 포함하여 간략히 짧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편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명한 경우는 드물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와주어야 한다’, ‘협력’, ‘도움’과 같이 능동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표현적 역할을 주로 다루는 ‘결혼과 육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강가정 관점이 많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한 경우가 ●=30.0으로 역할공유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의식적으로 남녀역할 공유로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돌보기 역할의 책임은 여성이라고 제시되었다.

자녀 사회화를 강조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1.5로 대부분 부모됨의 의미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가족역할측면에서 구조기능론 관점은 총 ●=31.5로 건강가정 관점 ●=33.0보다 조금 많게 나타났다.

2)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역할에 대한 계량분석

사진과 그림에서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설거지, 식사 준비,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 자녀 돌보기, 교육, 훈육과 같은 자녀양육, 애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주는 정서적 역할,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역할을 분리하여 나타내었는지, 또는 공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나타내는 앞치마를 입은 경우와 돌보는 역할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 부모의 성비가 균형 있게 제시되어 양성평등으로 나타났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에서 어머니 10.9%(회), 아버지 10.2%(13회), 경제적 역할에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2.3%(1회), 정서적 역할에서 어머니, 아버지 각각 4.7%(6회), 3.9%(5회)로 모두 부모가 비슷한 빈도로 제시되어서 남녀 평등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41.4%(53회)로 아버지 24.3%(31회)보다 1.7배 더 많이 제시되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의 사진과 그림이 다른 가족역할에 비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측면이 강조되어 보이나, 어머니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므로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었다. 사진과 그림에서 앞치마를 입은 모습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35.3%(6회), 어머니는 64.7%(11회)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약 2배 많이 나타났으므로 여전히 어머니가 가사노동의 담당자라는 의식이 남아있어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 결혼을 제외한 부모됨의 의미부터 자녀돌보기까지의 내용 중 제시된 사진과 그림 속 부모의 등장 횟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전반적인 자녀양육 분야에서 특정의 성을 강

조하는지 평등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27.4%(34회), 부부가 12.9%(16회), 아버지가 1.6%(2회)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의 현상은 여성의 몸과 관련이 있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나 사진이 많은 편이었으나, 아버지와 비교해볼 때 4.6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진과 그림은 어머니가 31.5%(39회), 부부가 15.3%(19회), 아버지가 11.3%(14회) 순으로 제시되었다.

부부가 평등하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나타난 비중도 많아졌으나, 여전히 어머니가 많은 비중을, 아버지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분유를 먹이는 사진처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림도 있었으나 그 비율이 어머니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3)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가족역할에 대한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역할을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 경제적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사노동은 어머니가 21.1%(4회)로 아버지 10.4%(2회)보다 많이 나타났고, 자녀양육에서도 어머니가 31.5%(6회)로 아버지 21.1%(4회)보다 많이 나타났다. 경제적 역할이 부부가 일을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각각 5.3%(1회) 나타났고, 정서적 역할은 어머니만 5.3%(1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역할이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에서 아버지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역할까지 아버지와 같이 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어머니의 역할이 과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발달주기

‘가정생활의 설계’ 대단원 중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단원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를 낳아 가족이 확대되며 자녀가 결혼이나 취직 등으로 독립을 하여 가족이 축소되는 발달주기가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발달론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발달론은 핵가족 위주라는 점에서 구조기능론과 비슷하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일정한 단계가 형성되고, 그 단계를 주로 첫 자녀 위주로 구분하며, 각 단계마다 가족이 수행해야 할 일을 제시한 측면에서 구조기능론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첫 자녀 위주로 설명하여 발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는지, 가족생활 주기도 가족의 구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건강가정 관점으로 보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실직, 이혼, 자녀가 결혼하지 않음 등의 비규범적 사건 등으로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건강가정 관점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첫 자녀 위주로 설명한 발달론 관점이 $\ominus=18.8$ 로 발달주기를 설명할 때 “가족 형성기(신혼기)-가족 확대기(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 성년기)-가족 축소기(자녀 결혼기, 노년기)(교과서 바)”처럼 첫 자녀와 핵가족 위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가족에 따라 발달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강가정 관점은 $\ominus=2.5$ 로 “가족생활 주기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므로 무자녀 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 가족, 재혼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는 전형적인 가족생활 주기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생활 주기에 맞추어 볼 때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나 모든 가족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교과서 나).”와 같이 건강가정 관점으로 뚜렷하게 제시된 경우도 있었으나 간략하게 나타내거나 작은 글씨로 참고자료로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발달주기의 종류보다는 길이가 달라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결혼 연령, 자녀의 출생 시기, 자녀 수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발달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부부의 결혼 연령, 자녀의 출산 시기와 자녀 수, 진학 상황, 수명 등에 따라 또 가족의 행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교과서 다).”처럼 사건에 의해 발달주기가 변화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설명한 건강가정 관점은 $\ominus=0.5$ 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발달주기에서 발달론 관점이 $\ominus=18.8$ 로 건강가정 관점 $\ominus=3.0$ 보다 6.3배 이상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교과서

〈표 IV-3〉 본문과 참고자료의 발달주기에 대한 심층분석

출판사	구분 핵가족(첫자녀)위주의 설명	다양한 가족구조의 발달주기	사건 위주 가족변화 발달	계 발달론 관점	계 건강가정 관점
가	△28△32▲33	☆29	·	△△▲ ☆	
나	△△22▲24	★23	·	△△▲ ★	
다	△27△28▲29	★27★28	☆27	△△▲ ★★☆	
라	△△25△26▲27	★33	·	△△△▲ ★	
마	△23△27△29▲33	★24	·	△△△▲ ★	
바	△29▲29-30	★30	·	△▲ ★	
사	△206▲209	·	★208	△▲ ★	
아	△28△29▲30	☆29	·	△△▲ ☆	
자	△△23▲24-25	·	·	△△▲ ·	
차	△25△▲26△27	·	·	△△△▲ ·	
카	△28▲30△31	·	·	△△▲ ·	
타	△29△31▲36	☆39	·	△△▲ ☆	
총계	⊙ 18.8	⊕ 2.5	⊕ 0.5	⊙ 18.8	⊕ 3.0

건강가정 관점	분량	발달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3★:1★		⊙=6△:3▲:1▲	

주 :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에서 발달주기를 첫 자녀 위주의 구분하고, 각 발달주기를 핵가족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가족관계

기술가정 교과에서 추구하는 능력 중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문제해결 측면으로 접근하여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지위에 따른 역할이나 권력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

라 뚜렷이 구분되었던 것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평등한 가족관계를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 역할, 권력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조부모 관계가 갈등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를 구조기능론에서는 부정적·역기능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사랑, 화합 내지 원만한 관계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에서는 갈등이 많고 적음을 문제화하는 것 보다는 필수적일 수 있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해결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가족 문제가 있다고만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야한다고 문제해결적 측면을 강조한 건강가정 관점을 나타냈는지, 갈등과 가족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적 측면으로 제시하지 않고 갈등이 있음을 부정적으로 본 구조기능론 관점이 나

타났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가족문제에 대해 부정적·비문제해결적으로 접근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3.5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변화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에 세대 간 갈등, 별거나 이혼, 가족의 문제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증가를 제시하는 등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교과서 마).

반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가족문제를 문제해결 측면으로 접근한 건강가정 관점은 ☆=1.6이었으나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가족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구조기능론 관점이 ●=3.5로 건강가정 관점 ☆=1.6보다 2.2배 많게 나타났다. 고등

학교 ‘가족생활의 설계’에서는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학습 내용으로 하지 않았기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적었다. 고등학생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에 충분하므로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이 요구된다.

5. 노후적응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면서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이 중요해졌다. 구조기능론에서 노인은 은퇴한 후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노후를 즐기고 은퇴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동안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를 즐기며 죽음을 준비

<표 IV-4>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

구분 출판사	갈등·가족문제에 대한 접근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	구조기능론 관점	계 건강가정 관점
	문제해결적 접근	부정적·비문제해결적 접근			
가	.	△47	.		△ .
나	★34★45	△30	.		△ ★★
다	.	△29	.		△ .
라	.	△40△41	.		△△ .
마	.	▲13△36	.		△▲ .
바
사
아	.	△23	.		△ .
자	☆22☆37	△26△27	.		△△ ☆☆
차	.	△12	.		△ .
카
타	.	△12△39	.		△△ .
총계	☆ 1.6	● 3.5	☆ 0.0	● 3.5	☆ 1.6

건강가정 관점	분량	구조기능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 ☆=3 ★=1 ★

●=6 △=3 △=1 ▲

주: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기능적이라고 본다. 반면에 건강가정 관점에 의하면 노후기가 길어지면서 은퇴 후 앞으로 자신의 삶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적응은 소극적으로 부양받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재취업, 재혼, 봉사활동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신을 계발하며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거나 죽음을 대비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노후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지,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며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노후적응에 대해 제시된 내용이 매우 적은 편으로 주로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단원 중 노년기의 생활설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죽음을 준비하며 여가생활을 즐

긴다는 노후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설명으로 구조기능론 관점을 나타낸 경우는 ●=1.3이었다.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건강가정 관점은 ⊕=5.7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병드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 80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노인들도 많다. 나이가 들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인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후손에게 전수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교과서라).”라고 노인을 주체로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다. 대부분 노후생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제한적인 모습을 제시하였고, 재

<표 IV-5> 본문과 참고자료의 노후적응에 대한 심층 분석

구분 출판사	소극적 노후생활	적극적 노후생활	노후 문제 해결	관점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가	·	★36-37	·	·	★
나	△24	·	·	△	·
다	·	★33	☆34	·	★☆
라	·	★28	·	·	★
마	·	★38	·	·	★
바	·	★40	·	·	★
사	△209	☆215	·	△	☆
아	·	☆39	·	·	☆
자	△25	★27 ★30	·	△	★ ★
차	△25	·	·	△	·
카	△32	☆33	·	△	☆
타	·	☆39	·	·	☆
총계	● 1.3	⊕ 5.7	⊕ 0.2	● 1.3	⊕ 5.9

건강가정 관점	분량	구조기능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 ☆ : 3 ★ : 1 ★

●=6 △ : 3 △ : 1 ▲

주 :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취업이 제시된 경우는 소수 발견되었으며 재혼을 할 수 있고 독립한 자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후생활의 모습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후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인 건강가정 관점은 ⑤=0.2로 노후생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길어진 노년기를 배우자 없이 혼자 보내야 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전반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 노인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교과서 다).”라고 간략하게 노인 복지의 사회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었다.

건강가정 관점이 ⑤=5.9로 구조기능론 관점 ④=1.3보다 약 4.5배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 생활의 문제점과 문제해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는 만큼 노인생활이 생활설계 중 하나의 단계로 형식적으로 간략히 제시되기보다는 노인 소외 문제, 긴 여생을 보람되게 보내는 방법, 가족 내에서 노인의 역할과 가족 관계 재정립 방법 및 노후생활의 문제점과 문제해결방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첨가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6. 결혼과 출산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 중 ‘결혼과 육아’에는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세부적으로 배우자 선택, 결혼, 부모됨, 임신, 출산, 산후조리, 아동발달, 자녀양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기능론 관점에서 배우자 선택을 하기 위해 이성교제를 하며, 핵가족을 이루기 위해 결혼은 필수적·의무적이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거나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다. 건강가정 관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의 생활을 포용하여 결혼·출산을 필수라고 가정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가 결정한 삶의 모습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이성교제를 배우자 선택을 목적으로 제시하여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결혼·부모됨·자녀출산을 필수사항 또는 선택사항으로 접근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배우자선택을 위한 이성교제의 구조기능론 관점은 ④=1.2, 결혼이 필수라는 구조기능론 관점은 ④=3.1, 부모됨

<표 IV-6> 본문과 참고자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분석

출판사	구분 배우자선택을 위한 이성교제	결혼 필수선택	부모됨 필수선택	자녀출산 필수선택	계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가	·	☆12△30★31△44☆45	★48	☆46	△△	★☆☆☆☆			
나	·	☆21★25△26	☆30	△25	△△	★☆☆			
다	·	☆13☆22☆40	△42☆44	☆22	△	☆☆☆☆☆			
라	·	△32△39△39	·	△40	△△△△	·			
마	·	△29△29△43	★46	△31	△△△△	★			
바	·	★45	☆47	★33	·	★☆☆			
사	·	☆10★11	·	·	·	☆☆			
아	△46△47	☆11☆46	☆49☆68	·	△△△	☆☆☆☆			
자	△35	△35	★38	·	△△	★			
차	△31	△30	·	·	△△	·			
카	△38	·	·	·	△	·			
타	·	☆24△43☆43★43-44	☆46	☆24	△	★☆☆☆☆			
총계	④=1.2	④=3.1	④=4.8	④=0.2	④=2.0	④=0.9	④=0.8	④=5.4	④=7.6

<표 계속>

건강가정 관점	분량	구조기능론 관점	분량
☆	1~2줄	△	1~2줄
★	3~5줄	△	3~5줄
★	6줄 이상	▲	6줄 이상
⊕=6☆ : 3★ : 1★		⊕=6△ : 3△ : 1▲	

주 : 가~타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이 필수라는 구조기능론 관점은 ▲=0.2, 자녀출산이 필수라는 구조기능론 관점은 ⊕=0.9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원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가 된다.”, “결혼은 경제적인 책임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주어진다(교과서 나.)”와 같이 결혼과 자녀출산이 필수인 것처럼 나타났다.

결혼이 선택이라는 건강가정 관점은 ⊕=4.8, 부모됨이 선택이라는 건강가정 관점은 ⊕=2.0, 자녀출산을 선택으로 보는 건강가정 관점은 ⊕=0.8이었다. 부모됨과 자녀출산을 선택·필수라고 둘 다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교과서 사, 차, 카). 결혼이 선택이라는 관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참고자료로 작게 표시되어 있거나 부연설명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만 간략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으로 “오늘날에는 자녀 출산을 당연시하기보다는 부부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은 부부 간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처럼 자녀출산을 명백한 선택으로 나타낸 교과서도 있었다.

결혼과 출산에서 나타난 건강가정 관점은 ⊕=7.6으로 구조기능론 관점 ▲=5.4보다 약 1.4배 많게 나타났다. 대

부분 결혼, 부모됨, 자녀출산을 선택사항이라고 제시하였으나 간략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7. 분석요소 전체에 대한 관점 비교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관련 단원을 가족구조, 가족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의 분석요소로 구분하여 하위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하위요소를 합한 각각의 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6개의 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관점들을 관점별로 총계를 합산하여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의 관점을 비교해본 결과 건강가정 관점이 구조기능론 관점보다 많게 나온 분석요소는 총 4항목으로 가족역할(⊕=33.0), 가족구조(⊕=11.1), 결혼과 출산(⊕=7.6), 노후적응

<표 IV-7>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 비교

분석요소	구분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1. 가족구조		8.0	11.1
2. 가족역할		31.5	33.0
3. 발달주기		18.8	3.0
4. 가족관계		3.5	1.6
5. 노후적응		1.3	5.9
6. 결혼과 출산		5.4	7.6
총계		⊕=68.5	⊕=62.2

(♣=5.9) 순이었다.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온 분석요소는 총 2항목으로 발달주기 (♣=18.8), 가족관계(♣=3.5) 순이었다. 그리고 발달주기 분석요소에서 특히 발달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약 6배정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이 총 ♣=68.5로 건강가정 관점 Ⓢ=62.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내용이 있는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가족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되어 있는지를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족 관점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문과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을 대상으로 가족구조, 가족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이라는 6가지로 분석요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에서 가족역할, 가족구조, 결혼과 출산, 노후적응 분석요소가 건강가정 관점이 구조기능론 관점보다 많이 나왔고 발달주기, 가족관계 분석요소가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왔다. 그리고 가족구조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은 핵가족이 많이 나타나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 구조 명칭의 가족 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나서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되었다. 가족역할 계량분석 결과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에서 나타난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가 표현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한다.

첫째, 가족구조에서 본문과 참고자료를 심층계량 분석한 경우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났으나 사진과 그림의 계량분석에서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된 부분이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단

원 중 현대 가족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학습목표에 부합되게 제시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족 구조를 연구한 선행연구(전미경 외 4인, 2007)에서 교과목표나 교과 내용상 핵가족과 확대가족 이외의 가족생활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였으며, 다른 내용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특정한 학습내용으로 집중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가족의 일반적인 설명, 사진과 그림에서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 구조의 가족 모두 고루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역할 심층분석은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구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역할공유처럼 특정한 학습목표에 따라 가족역할 내용이 제시될 경우에만 건강가정 관점으로 집중되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량분석은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정해숙, 2003; 김선경, 2002)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조기능론 관점에서 남녀 간의 역할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공유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서 건강가정 관점으로 의식하여 접근하도록 하고 역할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설명하거나 가족구성원의 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자료가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많이 제시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진과 그림, 가족의 예를 제시할 경우에는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단원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결혼과 육아' 단원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고루 분배되도록 더욱 고려하여 나타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발달주기에서는 발달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구조에 따라 다양한 생활주기 및 생활설계를 할 수 있음을 참고자료에만 제시하지 않고 본문에도 제시하며, 생활설계의 예도 핵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려 접근되어야함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가족발달 주기에서 첫 자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변화처럼

다른 측면의 요소로 설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하고 규범적인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구조기능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애정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가족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가정 관점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심각한 가족문제를 타협, 설득, 약속 등과 같은 문제 해결방법을 중학교의 학습내용보다 심화시켜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제시하여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사회기관을 소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서 가족관계가 내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노후적응은 건강가정 관점이 많이 나왔으나 그 분량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가족생활주기 중 노년기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되었다. 앞으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 적응이 중요해지므로 노후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단원으로 분리하여 부각시켜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은퇴 후 재취업, 황혼 이혼·재혼, 자원 봉사,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기, 독립했던 자녀와 다시 가정을 합치기, 친밀감과 결속력 증진을 위해 조부모가 된 부모와 부모가 된 자식의 관계 재정립, 노인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와 같은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후적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 중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원, 실버타운, 양로원처럼 사회적 자원 이용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도 요구된다.

여섯째, 결혼과 출산에서 건강가정 관점이 많이 나타났으나 단원구성이 이성교제→배우자 선택→결혼→부모됨→임신과 출산→자녀양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을 전제로 한다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 결혼, 부모됨, 자녀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각각의 의미를 규범적·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하여 선택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둘 다 자신의 결정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건강가정 관점으로 내용이 선택·비선택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결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를 개정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다양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역할 공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적극적인 노후적응, 사회적 복지 제도의 활용, 결혼과 출산의 준비 교육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관점으로 더 많이 접근되도록 제시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적용측면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재 교과서 내용 중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으로 접근된 내용을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현대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터넷자료나 신문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자료를 참고해서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건강가정 관점의 활동자료를 개발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선미 (2004). **7차 가정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내용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남호, 최유현 (2004). 초, 중등학교 실과(기술·가정)교과서 내적 체제의 비교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4(2), 18-33.

- 김명자, 장지연 (2006). 고등학생의 가정과 교과에서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 요구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143-156.
- 김미정, 유태명 (2004).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家政 교과서 삽화의 단원별 계량적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27-41.
- 김선경 (2002). 6, 7차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에 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2001).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주영, 이연숙, 이윤정, 정선희, 전진유, 김운선, 김하늬 (2006). 중학생과 학부모의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에 관한 요구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1), 95-111.
- 손태룡, 이경애 (2004).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삽화 분석. **과학교육연구**, 29, 91-111.
- 송혜림 (2005). 가정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의 재해석과 전망. **대한가정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자료집**.
-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79-190.
- 신상욱, 유태명, 한규정, 윤지현, 홍정숙, 김유정, 양정혜 (2000). 중학교 가정교과의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모듈 및 웹 기반 교육자료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19-38.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혜, 김지경 (2002). 구조기능 이론의 관점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I.나와 가족생활」 단원 내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12), 1-11.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 (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94년 추계학술대회집**, 25-42.
- 유영주 (2002). 건강가족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과학논집**, 6(1), 1-24.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태명 (1998). 중학교 가정 교과와 다른 교과의 교육내용 관련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77-93.
- 유태명 (2006). 가정과교육에서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 목표와 내용체계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79-95.
- 윤인경 (1996a).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79-91.
- 윤인경 (1996b).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53-64.
- 윤인경 (1997).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33-143.
- 윤인경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87-99.
- 윤인경 (2004).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8.
- 이연숙 (200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 단원의 변천과정 분석(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73-91.
- 이정규, 김명자, 모태화, 박미정, 박선영, 조재순 (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단원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35-54.
- 이지영 (2002).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 (2001). **초등학교 실과교과에 반영된 가정과교육 내용 분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02).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 (1997).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분석 연구. **중등교육연구**, 39, 263-287.
- 장현숙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 **중등교육연구**, 50, 323-340.
- 전미경, 노영주, 이진경, 김자영, 김지영 (2007).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개념 연구 I :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67-186.
- 정선희, 조병은(2007). '나와 가족관계' 단원에 대한 중학생의 긍정적 인식, 실천성 인식과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99-114.
- 정수경 (2004).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연계**

성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해숙 (2003). **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2), 55-66.
 정현숙 (2007). **가족생활교육.** 도서출판 신정.
 정현숙, 유계숙 (2001). **가족관계.** 도서출판 신정.
 조현주 (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기술·가정 교과

서 연구. **중등교육연구**, 48, 181-201.
 조희금, 박미석 (2004). 건강가족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최정혜 (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 분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4(1), 15-25.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내용이 있는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가족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되어 있는지를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족 관점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족구조, 가족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이라는 6가지로 분석요소를 구성하였다. 가족구조, 가족역할에서는 본문과 참고자료를 대상으로 심층분석하였고,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를 대상으로는 계량분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분석요소에서는 본문과 참고자료를 대상으로 심층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에서 건강가정 관점이 구조기능론 관점보다 많이 나온 분석요소는 가족역할, 가족구조, 결혼과 출산, 노후적응 순이었고, 구조기능론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온 분석요소는 가족관계였으며 발달주기 분석요소에서는 발달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구조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은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본문과 참고자료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가족역할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고등학교 가족 관련 단원은 구조기능론·발달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건강가정 관점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며 교사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된 내용을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하고 건강가정 관점의 학습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0일